

‘더현대’ 건립 부지 매매 협상 속도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개발 사전 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더현대 광주’ 건립 부지 매매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시한 ‘더현대 광주’ 조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 전방·일신방직 부지 사전협상안 조건부 동의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고시...2025년 착공·2027년 완공 목표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개발 사전 협상이 공공기여금 5899억원 등 내용으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더현대 광주’ 건립 부지 매매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안에 조건부 동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상업시설 용지와 역사 문화공원 부지 간 접근성 개선 방안과 도로 위계(분류 체계)를 고려한 가로망 계획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동위원회는 시, 사업자(휴먼스홀딩스PFV)

등이 참여한 도시계획 변경 협상 조정협의회에서 명값 예상 상승분 1조835억원의 54.45%인 5899억원으로 결정한 공공기여금 규모도 수용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공기여는 현물과 현금 형태로 이뤄진다. 현물에는 도로, 공원, 땅, 역사박물관 등이 포함돼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사전협상 안료 보고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일정이 남아 있어 착공 시기 등이 다소 지연

될 가능성도 있다.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측은 사전협상안 확정 후 개발 부지 내 핵심 시설인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현대백화점그룹과의 토지 매매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전방, 일신방직 공장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공장 시설 중 일부를 보존하고 복합소방물인 더현대 광주, 300실 규모 특급 호텔, 공동주택 4186세대를 건립하는 등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민주역사 위상정립과 방향 설정

오늘 5·18기록관서 정책 토론회
광주시는 20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다목적강당에서 ‘광주 민주역사 위상정립과 방향을 설정하는 민주역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의 민주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동학과 호남의병 역사, 3·1운동, 광주학생독

립운동, 촛불시민혁명 등 근현대 민주화운동 역사를 총망라해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세대에 민주역사를 어떻게 계승·공유할 것 인지 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4개 분야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역사학자인 성공회대학교 신주백 교수가 맡는다. 주제 발표와 토론은 ▲김병인 전남대학교 교수·명진 광주시의원 ‘광주민주역사도시 정책수립 필요

성과 방향’ ▲최혁 남도역사포럼 대표·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장 ‘동학 및 호남의병 역사’ ▲노성태 남도역사문화원장·김보름 빛고을역사교사모임 대표 ‘광주학생독립운동 및 3·1운동 역사’ ▲황광우 5·18민주화운동 작가·김희송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학생독립운동 및 3·1운동 역사’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가 동학농민운동부터 근현대 민주화운동까지 규모 있는 사회변혁운동으로 이어진 광주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 민주역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눈 쏟아진다... 광주시, 폭설 대비 만전

21·22일 최고 20cm...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가동

광주시가 폭설예보에 따라 한발 앞선 대책 대책 시스템을 가동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할 때 광주지역은 20일부터 눈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해 21-22일에는 하루 종일 영하권 기온을 유지하고, 5-15cm(많은 곳 20cm)의 폭설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예비특보 발효시 취약지역 등에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눈이 쏟아지면 곧바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와 5개 자치구, 제2순환도로 제설 대응팀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체특보 발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큰 도로는 시정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골목길은 시민이’라는 제설작업 원칙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6-17일 대설주의보가 예고되자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작업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제설작업 등 철저한 대비와 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시민과 상인들도 내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좋은 일자리 기업·숙련기술인 선정

우수중소기업인·광주명장·기술장에 (유)애니체 박점희 대표 등 8명

광주시는 19일 광주형일자리기업 6개사, 일자리우수기업 7개사, 우수중소기업인 3명, 광주명장 3명, 기술장 2명에 대한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은 매일유업(㈜광주공장), ㈜무등기업, ㈜현대하이텍, 오택캐리어(주), ㈜다이나믹디자인, ㈜세방산업 등 6개사다.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무등기업, ㈜현대하이텍 등 3개사는 2018년-2020년 예비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택캐리어(주), ㈜다이나믹디자인, ㈜세방산업 등 3개사는 예비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주형일자리기업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4개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시작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8개 기업이 광주형일자리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어 일자리우수기업에는 ㈜현대하이텍, 신진정밀(주), ㈜대정, ㈜위즈, ㈜유투, ㈜노아코스메틱, ㈜에드업 등 7개사가 선정됐다. 또 우수중소기업인에는 (유)애니체 박점희 대표, 아이티엘(주) 조명섭 대표, 신진정밀(주) 최진숙 대표 등 3명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광주명장에는 금형 분야 김영준(주보람엔지니어링) 대표, 문준길 스마트파트너 대표, 요리 분야 김영희(분향 조리실장 등 3명이, 올해의 기술장에는 영림테크(주)박태식, 태경(주)조승용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배추 작목 전환 ‘일석삼조’

11개 시·군 305ha 감축...가격 안정·소득 증대·폐기 예산 절감

전남도가 올해 ‘배추 대체작목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감추배추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결과 수급 안정과 가격지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해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울상을 지었던 농가들이 올해는 평년 수준을 유지한 배추 가격 덕에 모처럼 웃음을 지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추 배추 수급인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배추 가격은 전년(4775원/10kg)보다 1570원(33%) 높은 6345원에 거래돼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해남과 진도 등 11개 시·군으로부터 배추 작목 전환 신청을 받아 최종 305ha(451농가)에 대해 사업비 14억원(도비 4억원)을 확정하고 재배 면적을 감축했다. 시·군별로는 추산지인 해남이 가장 많은 254ha, 영암이 17ha, 진도가 13ha 등이다. 유형별로는 휴경이 132ha로 가장 많고 논휴과 재배계약이

된 보리 36ha, 밀 13ha, 유채 등 기타작물이 124ha 등이다. 이처럼 재배면적을 감축한 이유는 감추배추와 소량·연중으로 변화하고, 김치 소비량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분석 결과 2009년 29kg에서 2021년 20.9kg으로 감소하는 반면, 전국 재배 면적은 매년 1만7000ha 수준(전남 6368ha·전국의 37%)을 유지하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ha당 450만원으로 현장조사에서 배추를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한해 12월 말까지 지급한다. 김영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14억원을 투입해 재배면적을 감축한 것이 지난해 53억원을 투입해 배추 산지폐기(359ha)한 것보다 약 3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 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지정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